

+ 강순도 · EBS 기술본부장

자신감을 갖고, 큰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한해가 되기를



존경하는 방송기술인 여러분!

방송기술인들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2010년 경인년 한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아침의 태양과 함께 찾아온 여러분의 자신감과 충만함이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2009년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공황과 더불어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국가 경쟁력은 떨어졌고 우리 삶의 근간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법 통과로 말미암아 방송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결코 쉬운 한해는 아닌 듯 합니다. 국가적으로 여전히 세계적인 금융 불안정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예측 가능성은 더욱 혼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각 분야에서 무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방송은 열악한 주변환경을 극복하고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의 치열한 경쟁에도 대처해야 하는 힘든 난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시대적 상황이 우리 방송기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태함과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변화의 흐름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더욱 긴장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은 방송기술인들이 그 동안 마련해 놓은 미래의 큰 밑그림 속에서 성장 동력을 키우고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하나 이루어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재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기존의 방송 시스템에서부터 IT 기반의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DMB, 디지털 라디오는 물론 3DTV와 같은 실감 방송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방송영역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방송 기술인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2012년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ASO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시스템 전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혁기와 시대를 맞이하게 된 방송기술인들은 변화의 주체가 되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대망의 2010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방송기술인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큰 꿈과 희망을 노래했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